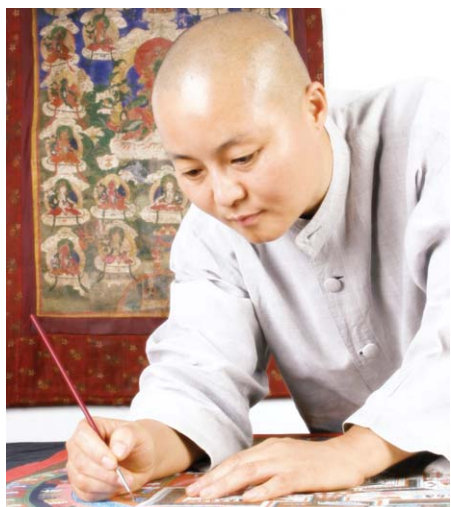




불서읽기 캠페인

# “진리 담은 만다라 보기만 해도 행복해져요”



만다라는 우주의 진리를 표현한 그림이다. 진리를 표상하는 만물을 정교하게 그려 넣으며 한 송이의 꽃처럼 조화로운 공간미학을 창출해 내는 그림이다. 물론 그 화려함과 섬세함이 만다라의 중요한 특징이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들어가는 각각의 물상들이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만다라의 의미를 모를 자라도 그저 보기만 해도 마음이 밝아지고 따뜻해지는 데 그 의미를 알고 본다면 얼마나 행복해 지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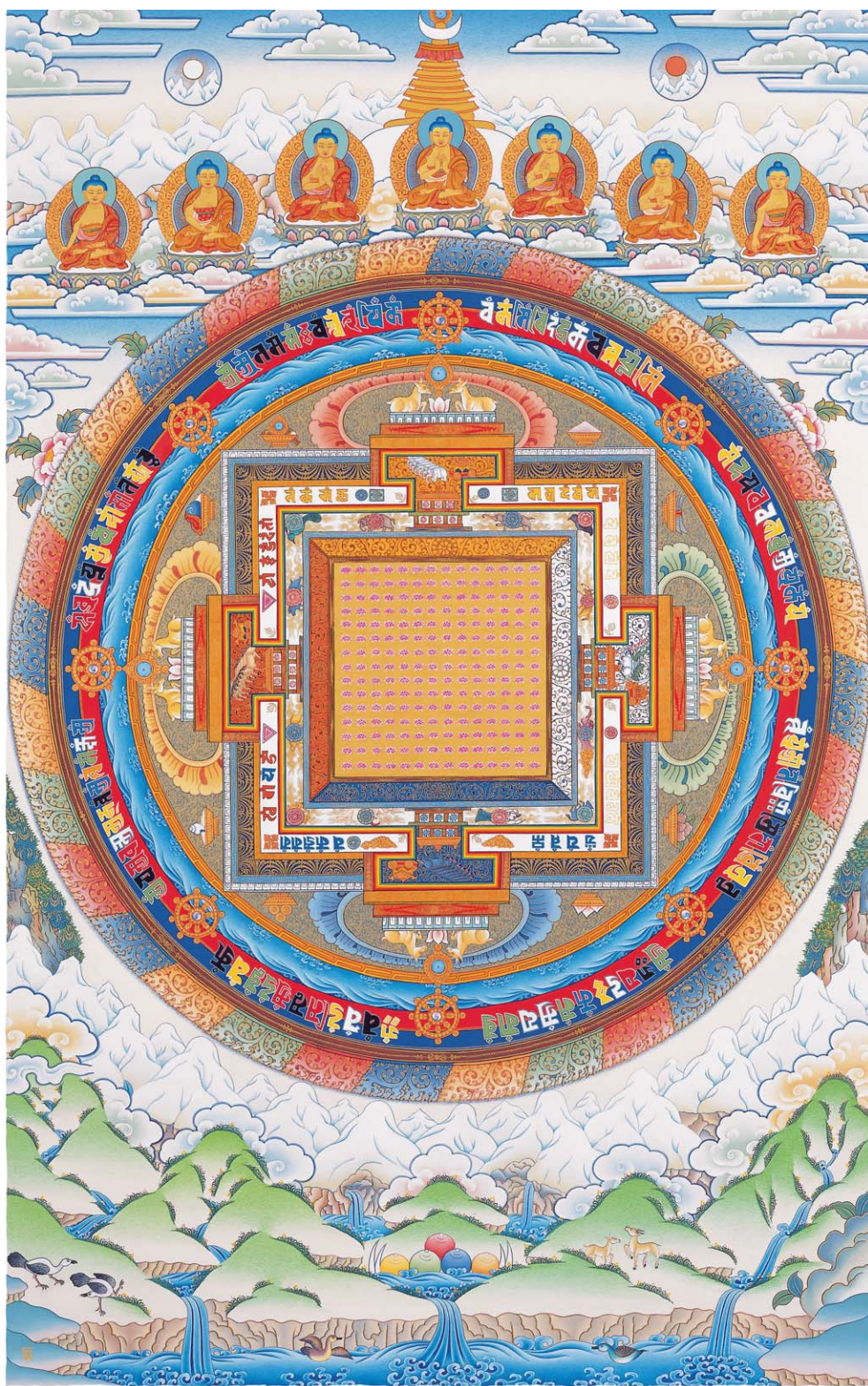
동휘 스님(위 사진)은 만다라를 수집하다가 직접 그리기로 마음먹고 만다라 작업에 수행의 모든 것을 걸었다.

만다라는 7세기에 형성된 태장계(胎藏界) 만다라와 그 이후에 형성된 금강계(金剛界) 만다라가 있다. 밀교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비밀집회 만다라와 칼라차크라 만다라가 만들어졌다. 만다라의 도상은 불교의 건축과 음악 조각 등 전 예술 분야에 큰 영향을 주었다. 태장계 만다라는 여래(如來)의 보리심(菩提心) 및 대비심(大悲心)을 태아를 양육하는 모태에 비유하여, 이로부터 세계가 현현(顯現)되며, 실천적으로는 이를 증득(證得)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림이고 금강계 만다라는 법신여래의 진리의 세계를 금강에 비유해 상징화 한 것이다.

칼라차크라 만다라는 영원한 시간의 수레바퀴라는 의미다. 온갖 진리의 상징들이 중심을 중심으로 배치되면서 무한한 시간과 공간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 중심의 고요와 아득함과 깊이가 바로 진리의 본래모습, 우리의 본바탕인 셈이다.

동휘 스님의 만다라는 그림이라는 영역에서 해체의 의식을 갖지는 않는다. 그러나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그림’이라는 발원의 깊이는 그윽하게 화폭을 장엄한다. 동휘 스님의 만다라는 기본적인 의미, 절대 진리의 표현이라는 원대한 출발은 전통 만다라를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부처님의 깨달음인 만다라의 세계를 더 밝고 순수한 색깔로 재구성하고 있다. 그러한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도상의 실험적 도전은 마침내 만다라를 하나의 브랜드로 출현시키기에 이르렀다.

‘해피부터다 해피만다라’가 바로 동휘 스님이 만다라를 기반으로 창안해 낸 브랜드다. 이 만다라의 기원과 진리표상의 원천적 발원으로 세상을 밝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것이 동휘 스님의 염원이다. 그러한 원력으로 그려낸 작품들이 한 권의 두툼한 도록으로 간행 됐다. 이 도록은 만다라의 전통과 새로운 해석의 가교다. 동휘 스님만이 작업할 수 있는 만다라의 노하우이기도 하다. 스님은 이렇게 정리한다.



동휘 스님작 약사여래 일곱부처님과 만다라 보궁.

“세상이 행복해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행복이 있어야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행복의 씨앗을 마음에서 키우면서 모든 존재와 마음의 뿌리가 하나임을 깨달아 진정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나누며 끊임 없는 축복과 칭찬으로 깨달음을 실천하는 자, 해피부터다 그것이 바로 자신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만다라입니다.”

동휘 스님은 만다라보궁 건립을 발원하고 11월 15일 불사 선포의식을 갖는다.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원소리 불사 현장에서 열리는 이 행사를 기점으로 만다라보궁 불사는 2015년까지 3단계에 나누어 진행될 계획이다. 행

사에서는 이웃들기를 위한 ‘만다라 찜탕’ 팔기도 열린다. (033)434-7332 임연태 기자



동휘스님의 해피부터다 해피만다라

동휘스님 지음 | 해피부터다 해피만다라 펴냄 | 10만원



월은 스님에게 듣는 경전이야기 <6>

## “경전의 결집을 서둘러야겠다”

부처님께서는 성도(成道) 후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자신을 위한 정진과 제자들을 위한 교제(敎誡)와 민중을 위한 교화(教化)에 정진하셔서 말년에는 교세도 어느 정도 안정되어 법회장에는 상수중(常隨衆) 1,255 명이 모이게 되었다. 그 상수대중 사이에는 덕망이 부처님과 거의 비슷해졌다고 할만 한 10대 제자를 비롯하여, 아직 자리조차 잡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실로 용사(龍蛇)혼잡(混雜), 용과 뱀이 한데 뒤엉켜 사는 형태였다.

연세도 이미 79세(남전에는 80세)에 이르렀고, 하실 말씀이나 하실 일도 거의 끝났다고 생각되자 몸소 무상(無常)법문(法門)을 시현(示現)으로 보이리라 하시고는 구시나성(俱尸那城) 사라(沙羅)나무 밑에서 인종(人終)법문을 마치고 二月十五日 조

옹히 열반(涅槃)에 드셨다는 일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일이다.

이때 가섭(迦葉)은 사십사(四)부처님의 수제자로서 모든 장애(障礙)를 여법(如法)히 마치고는 어느 한적한 나무 밑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계셨다. 그때 그 후식처는 큰길에서 과히 멀지않음으로 조용할 때인 오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소리가 이런저런 들려올 정도였는데 어느 날 이런 소리가 들렸다.

“그 노인네 참 잘 돌아가셨지, 우리들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모두 하지 못하고 묶어 놓으시니, 살맛이 있어야지, 이제 시원하게 돌아가셨으니 우리에게 맛도록 좀 편리하게 고치고 살자. 그 어른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오늘 내가 이렇게 계법(戒法)을 제정하지만 절대불변이 아니라 뒷날 상황이 달라지면 현실에 맞도록 고쳐도 좋다고 말이어야”라고

이 말을 들은 가섭은 정진이 번쩍 들었다. 부처님께서 상황(狀況)에 따라 계법을 고쳐도 좋다고 하신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셨는데 어떻게 임의(任意)대로 개정(改正)한다면 머지않아 불법은 ‘시장거리의 우유’ [城內之乳·목장의 우유처럼 순결하지 못함]가 될 것이 분명하니, 바른 법의 유

지를 위하여 경전결집(經典結集)을 서둘러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였다. 경전결집이란 부처님께서 평소( 평소)에 설하신 경전들을 전대 중이 모인 자리에서 공식으로 확인하여, 제멋대로 고치는 일이 없게 하는 공동약속행위(共同約束行爲)이다.

사실 부처님 당시에는 말은 있으나 글자도 종이 등 필기도구(筆記道具)도 없었다. 필기도구의 시초(始初)는 이른바 념필문지(唵筆倫紙)라 하여, 중국(中國)의 몽념(蒙恬)은 붓을 만들고 채륜(蔡倫)은 종이를 만들면서 필기체계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이들은 모두가 8세기경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다른 이에게 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광범위(廣範圍)하게 기억해야하고, 정확(正確)하게 기억해야하고, 장구(長久)하게 기억해야

### 가섭존자, 대중 불평 듣고

### ‘결집’ 경전 필요성 절감

은 아난존자를 미리 점찍으시고 별난 조건(條件)을 다 들어 주시면서 시봉(侍奉)으로 채용하셨던 것이 아니겠는가.

더구나 부처님께서 구제하시려는 대상의 근기(根機)가 단순히 눈앞에 있는 현전(現前)대중뿐이 아니라, 먼 미래중생, 나아가서는 과거중생까지도 모두 당신의 말씀에 힘입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셨던 것이다.

그래서 당신의 교법을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넓게, 영원히 전할 수 있을까를, 이른바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이라는 화두(話頭)에 실어 한 평생 주력(注力)하셨던 것인데 이런 부분을 잘 아는 가섭존자로서는 비록 하찮은 비구들의 잡담(雜談)이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임의로 고쳐가면서 살겠다는 말이 오뉴월의 날벼락만치나 심각하게 들렸을 것이다.

그래서 가섭존자께서는 벌떡 일어나 생각하기를 “그렇다. 어서 경전의 결집을 서둘러야겠다. 이것이 내가 해야 할 마지막 과제이다” 하고 다짐하셨다.

불교신문, 동국역경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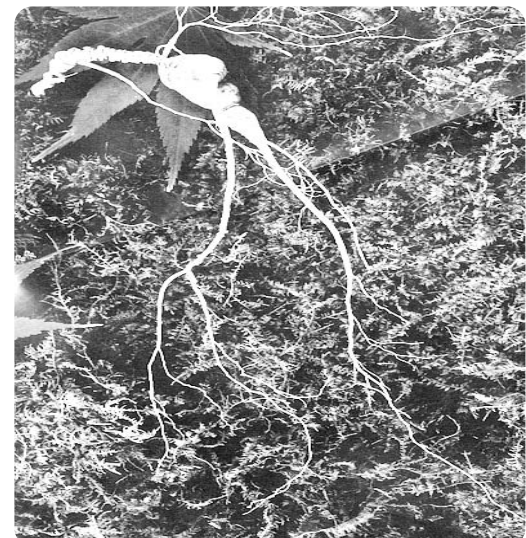
## 30년 전통의 산삼취급전문업체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自然

100% 순수 국내산! 국내산이 아닐경우 1억원 배상

존경하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행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치기적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본부에는 上藥 120가지 중藥 120가지 下藥 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물?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정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정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부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존경하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지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 별도상당(자연산삼, 장뇌산삼)
- 100년, 120년 자연 산삼 5주(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문의상당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주문처 | 서울 (02)713-7798 / 010-5250-7798

심마당 국립농산물품질관리국지정 (본식 51160-150)

## 조계종 77조 전강 대선사님 법어집

이제는 전설이 된 한국 근대사의 거목인 전강 대선사님의 최상승법과 예리한 지혜, 선기로 넘쳐난 삶이 생생하게 담겨 있는 전강 대선사님 법어집 <달다>!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 제자인 대원 선사님께서 전강 대선사님의 법거량과 법문, 일화를 재조명하여 보였습니다. 전강 대선사님과 대원 선사님의 특별한 인연과 고수명찰같이 어우러진 두 분의 법거량도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선광과 같은 지혜로 수놓은, 최상승법의 자취없는 문양과 향 없는 향기에 흠뻑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달다>는(선) 수행자들에게 10년 가문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78대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 佛전등록 전5권 / 佛도문관 / 佛법역론 / 佛전부경 / 佛금강경
- 佛산심명 / 佛중도가 / 佛반야심경 / 佛선문염송 전30권 중 11권
- 佛환단고기 전5권 / 佛법용선사심명 / 佛선가대감 / 佛법성계
- 주머니 속의 심경 / 영원한현실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짓는 희다
-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 세월을복제로세상물복사 / 달다

### 법회 안내

- 매일 첫째 일요일 서울 육조정맥선원 선가대감 법문 02-3494-0122
- 매일 둘째 일요일 국제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 매일 셋째 일요일 광주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 매일 넷째 일요일 부산 육조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